

# ‘명품 백’ 호주전에서 찾을까

최강희호 오늘 밤 7시 평가전 ... 포백 최재수·정인환·김영권·김창수 점검



최강희 감독

## “확실한 킬러 모습 보여줘” 원톱 이동국에 특별 주문

한국 축구 대표팀이 호주와의 스파링을 통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추가동력 확보에 나선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오후 7시 경기 화성의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호주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주축으로 단출하게 18명이 소집됐다.  
박주영(셀타 비고),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김보경(카디프시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파는 제외됐다.  
최 감독은 이번 평가전의 목표가 내년 3월 재개되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 예선에서 요긴하게 기용할 선수를 낙점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컵 예선 1~4차전에서 수비라인에 보완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젊은 수비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강희 감독은 “필드 플레이어 모두 골고루 기용해 기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출전시간이 비슷한 시험장이라서 선발 라인업의 의미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대표팀의 전술이나 개별 선수의 특색을 보면 4-2-3-1 전형의 윤곽은 도출된다.  
최전방 골잡이로는 이란과의 월드컵 예선 4차전에서 탈락했다가 재승선한 이동국(전북)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고참 역할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게 최 감독이 밝힌 탈락 사유였다. ‘이기는 축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돌아온 이동국이 확실한 킬러의 모습을 재확인시킬지 주목된다.  
김신욱(울산)은 처진 스트라이커로 뒤를 받치고 좌우 날개 공격수로는 이근호(울산), 김형범(대전)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미드필드에는 하대성(서울), 박종우(부산)가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센터백에는 정인환(인천), 김영권(광주) 에버그란데 이 버릴 것으로 보이며 좌우 풀백에는 최재수(수원), 김창수(부산)가 기용될 전망이다. 최근 1~2년 동안 대표팀에서 좌우 수비수만큼 여러 선수가 오간 포지션은 없었다. 마땅한 풀백이 없다는 진단 때문에 중앙 수비수 김영권, 미드필더 김재성(상주)까지도 각각 좌우 수비수로 시험받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 풀백의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키퍼로는 정성룡(수원)이나 김영광(울산)이 나선다.  
이승기(광주), 황진성(포항), 고병진(서울)은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측면까지 누비 역량을 갖췄다. 황서호(히로시마 산프레



체, 김기희(알 사일리아)는 중앙 수비수, 신광훈(포항)은 오른쪽 수비수로 기용될 전망이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32위로 호주(33위)보다 한 계단이 높다. /연합뉴스

## 수영 양정두·양궁 최미선 MVP

### 전남도체육회 선정

수영 양정두(전남수영연맹)와 양궁 최미선(전남체고 1년)이 전남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가 13일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실에서 제101차 운영인사회를 열고 양정두와 최미선을 남·여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올 시즌 전남에 새동지를 틈 양정두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점영 50m·자유형 50m에서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계영 4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교 1학년인 최미선은 금 1(50m), 은 1(개인전), 동 1(60m)의 성적으로 여자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최미선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로 구성된 광주·전남 태극회가 수여하는 태극희망의 주인공으로도 선정, ‘2관왕’이 됐다.  
지난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고 16년만의 전국 정상 등극에 성공한 순천공고 럭비팀은 2년 연속 최우수단체팀의 영예를 안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정두 최미선

금 2, 은 1, 동 2개를 수확한 나주시청 사이클팀도 2년 연속 직장팀을 대표해 최우수팀에 선정됐다. 국가대표 나야름은 이번 대회에서 금 2(도로독주·포인트레이스), 은 1(3km개인추발), 동 1(3km단체추발)의 성적을 기록하며 나주시청 팀의 질주를 이끌었다.  
사이클의 임사랑(전남마용고)은 스프린트와 경륜에서 2관왕에 오르며 광주·전남체육회 출신기자들이 수여하는 ‘미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주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미니 게임을 하며 평가전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QPR 박지성 “기다려 맨유”

### 24일 친정팀과 복수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레인저스(QPR)의 주장 박지성이 부상 탓에 4경기 연속으로 출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스포츠채널 스카이스포츠는 박지성이 무릎 부상을 회복하지 못해 17일(이하 현지 시각) 사우샘프턴과의 홈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박지성은 지난달 21일 에버턴과의 홈경기

에서 90분을 뛰다가 무릎을 다쳤다. 이 부상 탓에 최근 3경기(아스널, 레딩, 스토틀리)에서 뛰지 못했다.  
QPR의 마크 휴즈 감독은 “박지성이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는 투입하기 힘들다”며 “다음 주에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지성은 24일로 예정된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의 원정경기에서 복귀할 전망이다.

## KIA 타이거즈 2013 캐치프레이즈 공모

KIA 타이거즈가 2013년도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 팝업창과 이메일(v11-tigers@naver.com)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는 12월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대상 1명에게는 WBC 관람권과 태블릿PC가 주어진다.  
우수상 1명에게는 WBC 관람권, 장려상 10명에게는 어센티 유니폼을 각각 상품으로 증정한다. WBC 관람권과 태블릿PC의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스완지 기성용 “기다려 제라드”

### 25일 리버풀전에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기성용(23·스완지시티)이 허벅지 부상으로 열흘 가량 그라운드에서 나서지 못하게 됐다. 스완지시티는 13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이 허벅지 부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결장한다”고 밝혔다.  
스완지시티는 “사우샘프턴전에서 허벅지를 다친 기성용이 진단을 받은 결과 헬스 트레이닝이 경미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말 뉴캐슬과의 원정에는 나서지 못한

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지난 11일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11라운드 원정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상대 골대를 태클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쳤다.  
당초 2~3주가량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상이 예상보다 심하지 않아 순조롭게 회복하면 25일 리버풀과의 홈경기에는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류현진 포스팅 수용 “LA와 계약 천천히”

### 추신수 새 유니폼 보스턴이나 양키즈냐

투수 류현진(25·한화이글스)과의 우선협상권을 가져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계약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스탠 카스텐 LA 다저스 구단 사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올해 윈터미팅이 끝날 때까지는 류현진과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카스텐 사장은 “윈터미팅이 끝나기 전에는 류현진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이 구단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윈터미팅은 매년 겨울에 메이저리그 30개 팀 구단주와 단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한 시즌을 되돌아보고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윈터미팅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화 구단으로부터 류현진에 대한 포스팅 응찰액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이를 13일 오후 MLB 사무국에 봉보했다. 다저스는 포스팅에서 2573만7737달러33센트(약 280억원)라는 최고응찰액을 적어내 류현진과의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이제 다저스는 MLB 커미셔너가 한화의 응찰 결과 수용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류현진과 독점 계약 교섭권을 갖는다.  
KBO에 따르면 MLB 커미셔너가 바로 구단에 한화의 포스팅 응찰액 수용 결정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 류현진과 다저스 간 협상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2일이 된다.



류현진



추신수

결국 다저스는 다음 달 7일에서 12일 사이에 류현진과의 계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인 셈이다.  
이때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무산된다.  
구단은 이번 윈터미팅에서 트레이드나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을 통한 선발진 보강에 집중하고 나서 류현진과의 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클리블랜드의 추신수도 내년 시즌엔 새로운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크리스 안토네티 클리블랜드 단장은 12일 MLB 닷컴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추신수와 계약 연장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타격의 정확성과 파워, 수비, 송구, 주루 능력을 고루 갖춘 ‘5툴 플레이어(five-tool player)’로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즈에서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도 지난달 25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클리블랜드를 떠난다면 우승하는 팀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